



[정책동향] EU, '낙농용어 사용제한' 법안 개정안 철회

- 낙농업계 실망-대체식품 업계 환영 등 희비교차



EU에서 낙농용어 사용을 놓고 낙농업계와 식물기반 대체식품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용어 사용제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철회되며 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7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식물기반 대체식품에 대해 '우유(milk)' 또는 '요거트(yoghurt)' 용어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공동농업정책(CAP) 제171조 개정안' 상정을 가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식물기반 대체식품에 대한 낙농용어 사용제한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유제품을 연상시키는 포장재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알려지며 대체식품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낙농업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대체식품업계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불합리한 용어 사용 금지가 끝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 출처 : greenqueen.com.hk, 5월 26일 >

[마케팅] 美 낙농자조금, 디지털 세대 겨냥 홍보활동 전개

- 우유 및 유제품 활용 레시피 경연대회 진행



미국 3만 7천여 낙농가의 자조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Dairy Management Inc(DMI)가 디지털과 모바일에 익숙한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겨냥한 낙농산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DMI는 현재 Z세대의 90%가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지난해 이미 온라인 비디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와 게임 인플루언서들과 제휴해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어 금년에는 유튜브 게이머와 게임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우유 및 유제품 활용 레시피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우유 및 유제품을 활용해 게임 캐릭터 모양으로 한 간식을 만든 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I 관계자는 이를 통해 Z세대들에게 우유와 유제품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bollyinside.com, 5월 2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